

모두가 안심하고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모두 힘을 합쳐 왕따(이지메, いじめ)를 없애자!~

왕따란?

같은 학교·학급·학원·스포츠클럽 등의 친구 혹은 집단으로부터, 학교 내외부에 관계없이, 「욕설을 듣는다」, 「 무시당한다」, 「따돌림을 당한다」, 「심부름꾼 취급을 받는다」, 「폭력을 당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당한다」 등(인터넷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당신이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면 그것은 왕따입니다.

왕따 방지대책 추진법에 대해

2013년 9월에 「왕따 방지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어, 『제 4조 아동 등은 왕따를 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법률에서 왕따는 금지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직원 은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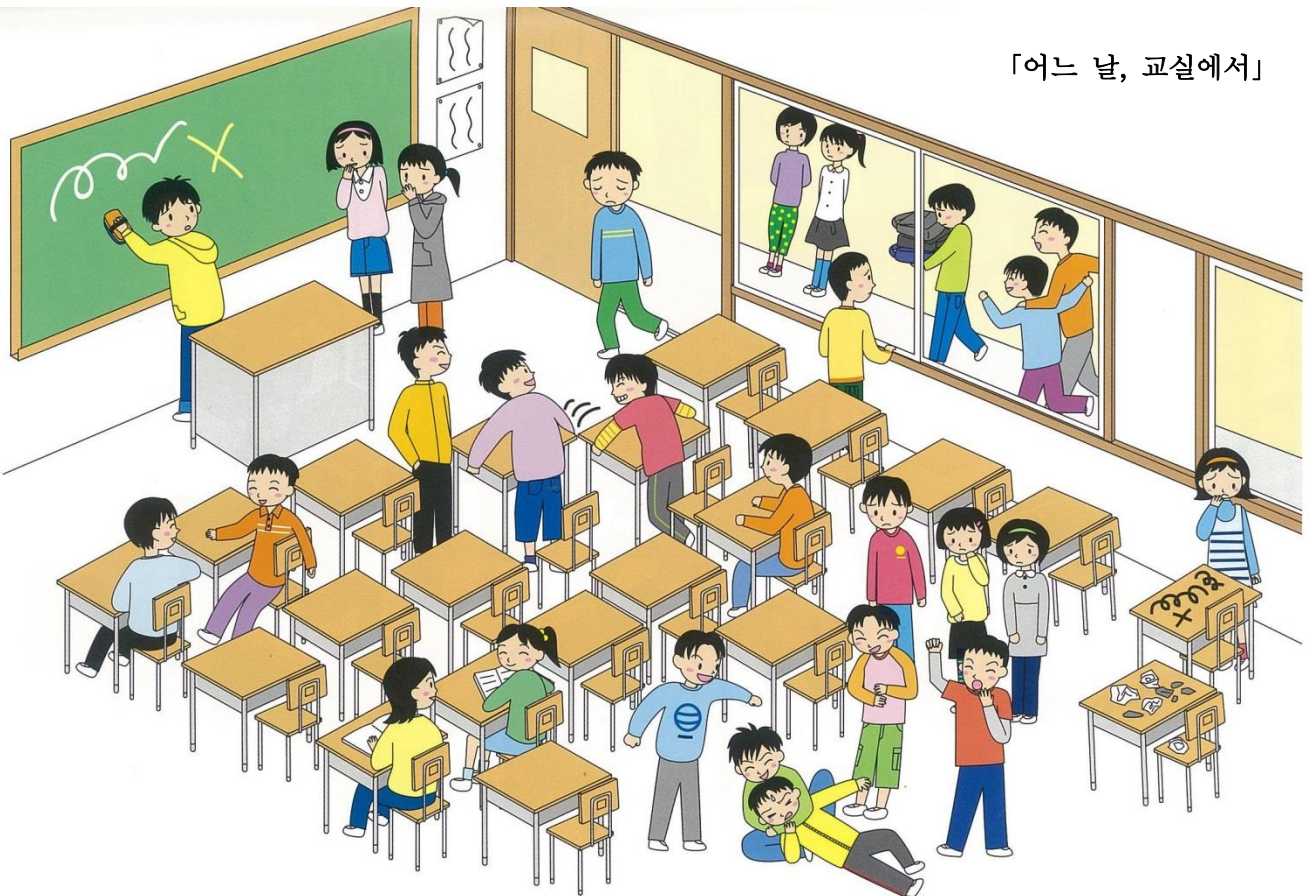
※「아동 등」이란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어린이 및 학생들을 의미한다.

인터넷 왕따

메일, 블로그, SNS 등에 사람에게 상처입히는 글을 작성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림이나 영상을 보낸다.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허가없이 업로드한다. 이와 같은 행위도 「왕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학급에서 이와 같은 광경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느 날, 교실에서」

(출전: 『인권 학습실천사례 (중학교편)』 교토부교육위원회)

왕따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당신에게

-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 용기를 갖고 상담해 주세요. 학교는 당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왕따를 시키고 있는 당신에게

- 상대의 기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대로 괜찮습니까?
- 당신이 가벼운 기분으로 한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사실은 당신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따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

- 자신은 왕따를 시키고 있지 않더라도, 왕따를 보고 못본 척 하는 것은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말을 걸어주세요. 용기를 내서, 바로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해주세요.
- 혼자서 어려운 일은 둘이서, 셋이서, 모두가 협력하여 행동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소중한 친구를 구합니다.

당신의 학교, 학급은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 당하게 하지 않는다 · 용서하지 않는다』

친구를 소중하게, 모두가 왕따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안심하고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관련 상담 기관

©인터넷 왕따 통보 사이트 (스마트폰 · 휴대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http://www.kyoto-be.ne.jp/gakkyou/cms/?page_id=118

FAX···075-414-5837